

지역 소식통

정읍시, 4대 폭력 통합 예방교육

정읍시는 29일 정읍시체육관에서 김생기 시장을 비롯해 산하 고위 공직자와 직원 1400여 명을 대상으로 2017년 상반기 직장 내 4대 폭력 통합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들의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4대 폭력(성폭력,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김혜영 강사는 여성가족부에서 추천하는 우수 교육 콘텐츠 등을 활용해 건전한 성문화 조성을 위한 각종 사례와 예방 대책 방안, 건전한 가치관 함양을 위한 자제 등을 강의해 호응을 이끌어 냈다.

정읍=김대환기자

신태인도서관, 초등학생 대상 도서관 이용자 교육 '호응'

"신태인도서관이 신태인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도서관 이용자 교육을 실시해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은 도서관에 처음 왔어요다.

교육에서는 책의 기원과 역사, 정읍시 산하 도서관 소개 외에도 학년별 수준에 맞는 도서 검색 방법과 서가에서 책 찾기 등을 실습 위주로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총 6회 운영된다.

지난 26일 현재까지 4회의 교육이 실시됐는데, 3학년부터 6학년 학생 151명이 참여했다.

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이 도서관을 학교만큼 친숙한 기관으로 인식해서 자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 하서면,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정기 간담회 개최

부안군 하서면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의 안전한 사업추진을 위해 참여자 33명을 대상으로 정기 간담회 및 활동교육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기 간담회는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으며 어르신들에게 사회참여 기회 제공과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이 이번 사업의 취지임을 안내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을 청취하는 소통의 시간이 마련됐다.

문 숙자 하서면장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 어르신들 덕분에 하서면이 항상 깨끗하고 쾌적하다"며 "앞으로도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해 건강한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세계잼버리 부안 새만금 유치

아태지역 4개국 지원 약속

김종규 부안군수, 해외출장서 4개국 스카우트연맹 주요 인사 면담 협조 요청

태국과 방글라데시, 네팔 부안 아태지역 4개국이 2023년 세계잼버리 부안 새만금 유치 지지를 약속을 받았다.

지난 17일부터 28일까지 김종규 부안군수와 전북도, 한국스카우트 전북도연맹 등이 2023년 세계잼버리 부안 새만금에 유치하려고 태국 등 아태지역 4개국 해외출장을 진행한 결과 4개국 모두 부안 새만금 유치 지지를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해외출장에서는 4개국 스카우트연맹 주요 인사를 면담하고 현지 대사관을 방문해 유치 협조를 요청했다. 출장결과 엠 엠 파나디 디스쿨 태국 교육부 차관과 모자 멜 하루 칸 방글라데시 행정부 차관, 라빈 다한 네팔 스카우트연맹 차프 스카우트, 카르마 예헤 부탄 교육부 차관 등 현지 스카우트연맹 관계자들이 2023년 세계잼버리 부안 새만금 유치 지지를 약속을 하고 적극 협조할 것을 다짐했다.

김종규 부안군수는 이번 해외출장에서 부안 새만금에 기네스북에 등재된 33.9km의 세계 최장의 방조제 안쪽의 401km의 광활한 부지로서 여의도 면적의 약 200배에 이르며 주위에 산, 갯벌, 바다, 강, 들, 하천, 계곡, 평야 등 대자연의 아름다운 다양한 과정활동 구상하기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중점 홍보했다.

더욱이 2023년 세계잼버리가 부안 새만금으로 확정되면 선보일 스마트 잼버리는 모바일 앱을 사용해 5G 기반의 무료 와이파이를 활용해 고향에 있는 가족, 친구들과 함께 잼버리를 즐길 수 있으며 자신의 미래를 그려 보는 가상현실 체험도 가능해 경쟁력

이 높은 점을 강조했다.

특히 김종규 군수는 "2023년 세계잼버리가 부안 새만금으로 유치되면 참가자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모아 함께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운영자와 참가자들이 생생함을 행사할 것"이라며 "불과 10여 년 전에 바다였던 곳이 육지로 변한 기적의 땅 부안 새만금에서 세계 청소년들이 마음껏 꿈을 그려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종규 군수는 "2023년 세계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해 안전하고 완벽한 시설준비와 편의지원에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세계 청소년들을 어머니의 마음으로 두 팔 벌려 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안=이옥수기자

고창군, 한우명품화 사업 적극 추진

지속적인 한우개량·개체관리 등 농가 소득향상 앞장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FTA대응과 농가 소득향상을 위한 한우 번식기반 유지 및 개량추진을 위해 민선6기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한우명품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9일 군에 따르면 지난 한우 사육기반의 취약성으로 사업 추진이 다소 늦어졌으나 등록 및 선정심사, 수경관 이식, 우량장애 공급 등의 개량사업을 통해 고급육 체계 구축에 힘써왔다.

이를 통해 한우산업 활성화 및 브랜드 육성을 통한 안정적 소득기반 전락으로 오는 2018년까지 5년 동안 총 15개 사업 43억원을 투입하여 고창군 한우명품화를 기반을 위해 적극 노력

하고 있다. 특히, 전북도정 3대 핵심사업 삼각농정 연계사업으로 고능력안소축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암소 친자 확인 등 검사를 통해 전라북도 한우 암소 차별화와 우수한 송아지 공급을 위해 경매장 출하시 전북 JK우 송아지 로 표기하고 있다.

아울러 한우명품화사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한 결과 한우 고급육 출현율(1등급 이상)이 2014년 60%에서 2016년 68%로 8% 상승하는 효과를 거뒀다. 군은 한우개량 및 개체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2018년에는 70%까지 높여 한우농가 소득향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고창부안축협에 우량송아지 생산 비육시설을 지원하여(2011~2012년/12억원) 각고의 노력으로 생산한 우량 암송아지 27두를 지난 5월 4일 고창부안축협 가축유통센터에서 한우농가 소득향상을 위해 최자가 분양을 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분양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

박우정 군수는 "그동안 묵묵히 축산업을 지켜온 한우 농가들에게 감사드리며 "한우명품화사업은 단기간에 만족할만한 성과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체계화시켜 내실 있게 추진해 전국 제일의 명품 고창한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고창군, '가족과 함께하는 장애체험' 운영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가족 간 소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가족과 함께하는 장애체험'을 운영했다.

지난 27일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이번 체험은 2017년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중 하나로 고창군이 주관하고 (사)한두레 장애인자립생활협회(회장 정종만)가 후원하여 기획됐다.

이날 20여명의 청소년과 가족이 참

여해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장애이해 교육으로 장애유형과 장애발생원인 및 장애인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 등에 관한 정종만 회장의 강의와 체험도 진행됐다.

시각장애체험에서는 엄마와 아이가 한 팀이 되어 한명은 안내를 해주며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 활동을 했고, 휠체어 체험은 수동휠체어를 직접 작동하면

서 장애인의 생활을 잠깐이나마 체험해보는 시간으로 이뤄졌다.

좌식배우체험은 바다에 앉아서 하는 쉽고 간단한 체육활동으로 장애를 체험하면서 또 활동성이 있어 어린 아동들이 즐겁게 참여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험을 통해서도 소통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만들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사회적 약자와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농업기술센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팜파티 운영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일환으로 팜파티를 시범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기술센터는 지난 27일 소비자 70여명을 덕천 활동현대원(대표 박정욱)으로 초청해 농산물 향 가득한 활동현대원에서 여유를 찾다라는 주제로 팜파티를 가졌다. 초록의 녹차밭을 배경으로 펼쳐진 이날 행사에서는 파시오네 클럽의 음악공연이 펼쳐졌다. 또 녹차, 솔밭 거닐기와 녹차집 부치기, 차를 이용한 목과 식혜 등의 음식 맛보기, 작두공예와 꽃차 등의 대용차 시음 등이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유기농 자생차 수확과 튀기 등 차 생산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팜파티란 농장을 뜻하는 팜(Farm)과 파티(Party)의 합성어이다.

소비자들이 농촌을 방문해 농장에 생소한 농산물과 음식들을 맛보고 즐기는 파티문화를 결합한 새로운 농촌 마케팅이다.

도시민에게는 농촌의 여유와 문화를 즐길 기회를 제공한 물론 생산 현장에서 신선하고 질 좋은 농산물 직접 구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농장 입장에서는 도시 소비자들에게 농촌 체험 기회를 제공 농산물 생산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안전한 먹거리라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는 기회이다.

기술센터 관계자는 "팜파티는 소비자가 농촌문화를 경험하고 생산자와의 직접 교류할 수 있는 기회로 소비자와 생산자 교류 확대와 정읍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증진에 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 YOU YOU 참뽕축제, 6월 2~4일 개최

제3회 YOU YOU(유유) 참뽕축제가 다음달 2일부터 4일까지 청정 누에타운특구로 지정된 부안군 변산면 마포리 유유마을 부안누에타운 광장에서 개최된다.

유유참뽕축제는 부안 유유마을에서 주최하고 부안군과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전북농업기술원 잠사군충시협회가 후원하며 잠령제, 마을 제철 농산물 직거래 장터, 양잠산물 수확·가공 체험, 공연, 마을역사 전시, 민속놀이, 누에올림픽 등 부안참뽕을 이용한 다양한 먹거리와 즐길 거리로 펼쳐진다.

참뽕축제는 오는 6월 2일 오전 10시 누에 품년을 기원하는 잠령제로 시작되며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와 참뽕장날 먹거리장터가 운영돼 유유마을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누에·오디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누에고치 필링 테라 피, 오디수확 체험, 오디 청 만들기, 오디 잼 고형

잼 만들기, 오디뽕인 소금 만들기, 뽕잎갈무리떡 만들기 등 가공체험과 누에고치 핀, 핸드폰걸이, 팔찌, 머리띠 목걸이 등 약세시작 만들기, 누에 캐릭터를 이용한 뽕인버누, 부채, 티셔츠, 전사 작업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을 즐길 수 있다.

또 읍읍 오디 빨리 먹기, 신동뽕! 누에 3종 올림픽, 뽕나무터널 이색누에 찾기, 풍선던지기, 참뽕머리걸이 스탬프 찍기 등 오복과 재미와 건강이 가득한 이색 프로그램을 마련된다.

부안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지난 21일 부안참뽕데이를 시작으로 6월 중순까지 부안은 참뽕오리가 제철을 맞는다"며 "유유참뽕축제가 개최되는 유유마을은 150년의 역사를 간직한 누에마을로 대한민국 양잠업의 중심인 만큼 가족단위로 축제에 참여해 뽕을 직접 즐기고 느끼면서 행복한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Advertisement for Mulberry Wine (Gangsanmyeongju) featuring various gift sets and promotional text. The ad includes images of wine bottles, gift boxes, and a cartoon bear mascot. Text describes the wine's quality and offers special prices for gift sets.